
이주노동 운동 탄압을 규탄한다(이주인권연대 성명서)

2008년 5월 8일 오전 11:38

이주노동 운동 탄압을 규탄한다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이주노동자 단속을 중단하라!

지금 한국에 사람은 없다. 사람답게 살 권리를 가진 사람이 한국정부에게 없는 것이다. 뇌송송 구멍 탁하니 진짜 죽나 보자며 국민 모두를 광우병 마루타로 만들고 있는 한국정부다. 이들에게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이야기하는 것은 애초부터 미친소에 경을 읽는 무안한 행위일지 모른다. 그래도 우리가 만들었다는 원죄가 있어 지금이라도 가진자 몇을 위해 수많은 생명을 위협하는 오만과 독선을 버리고 이 땅에 사는 모두가 사람다운 권리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세상을 위한 머슴 짓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쓴다.

지난 5월 2일 토르너 이주노동조합 위원장과 소브루 부위원장을 표적단속한 것은 한마디로 만행이다. 지난해 11월 이주노동자의 전 지도부 3인을 동시에 표적단속한 지 5개월만의 일이며, 이는 이제까지 이주노동자의 모든 지도부가 당해온 일이다. 또한 지난 1월에는 중국동포 권오씨가 단속과정에서 8층에서 추락해 사망했으며, 3월에는 1만여명의 이주노동자 자녀들에 대한 교육을 중단하고 강제출국 대상으로 만들었고, 지난 4월 16일에 남양주에서 단속과정에서 방글라데시 노동자가 3층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다. 이어 정부는 5월 1일 노동절부터 집중단속을 선포했다. 이주노동자들의 숨통을 막아 10명의 소중한 생명을 질식사시켰던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는 정부의 기억에서 사라진지 이미 오래이다.

'불법체류를 제로(0)로 만들어라'는 대통령의 한마디 말에 주무부서인 법무부가 설레발을 치고 있는 것이다. 아마 그들도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불법체류를 없앨 수 있다'는 것은 '광우병 걸린 소도 안전하다'는 말과도 같은, 아무도 믿을 수 없는 말임을. 밤낮없이 휴일도 반납해 가며 쥐몰이를 해서 매년 3만명 이상을 강제단속추방 시켜도 그 숫자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것을. 그래서 근본적인 이주노동자 정책의 변화 없이 인간사냥식 강제단속추방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불법체류문제의 유일한 해법은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을 합법화 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들 스스로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 진실을 누구하나 똑 바로 밝히지 못하는 것이, 광우병 청문회에 나와서 온 국민이 아는 사실을 감추기에 급급해 하는 것이 실용정부, 용량 미달 정부, 당신들의 수준이다.

이미 대한민국 헌법에서도 소수자들 스스로 사회적 보호 기능을 담당하기 위한 행동으로 가장 기본적인 자유권이라고 할 만큼 노동조합은 국적과 체류자격에 상관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생존권과 같은 것이다. 특히나 한국사회의 가장 낮은 자리를 지키며 땀 흘려 노동하고 있는 미등록이주노동자들에게 있어서는 더더욱 절실한 그 무엇이 아닐 수 없다. 그렇기에 미친소로 잔치를 벌여도 잘 살 수 있다고 장담할 만큼 무식한 당신들의 방식대로 탄압을 해도 이주노동자 당사자들의 운동은 끊임없이 계속되고 발전하는 것이다. 이것이 시대의 요구이고 막을 수 없는 흐름이다.

폭압적이고 반인권적인 이주민 정책을 포장하기 위해 청와대로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을 초청해 공놀이를 해도, 다문화축제의 축포를 하늘 높이 쏘아 올려도 이주노동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 당신들의 모습을 모든 이주민들이 두 눈 크게 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당신들 잊지 마시라. 미친소처럼 일방적으로 강요당해 온 국민이 거부하고 있는 협박 같은 협약이 아니라 40여년 전에 만들어져 한국사회가 세계와 지키겠다고 비준한 시

민적·정치적 권리협약에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에 대해 노동조합 결성의 자유를 포함하는 결사의 자유, 바로 자유권을 보장하고 있다는 것을 당신들의 구멍 뚫린 뇌 속 깊이 기억하시라.

하여 지금당장 이주노동자들을 죽음의 벼랑 끝으로 내모는 만행을 중단하라. 고단한 이주노동을 견디기에도 어려운 상황에서 스스로의 권리를 위해 앞서 투쟁했던 이주노동조합 토르너 위원장과 소부르 부위원장에 채워진 수갑을 풀고, 이주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의 칼을 거둬라. 그리고 수많은 죽음을 부르고 온갖 인권침해를 반복하고 있는 합동단속, 정부합동인권침해를 당장에 멈춰라. 더불어 무엇보다 당신들 스스로 잘 알고 있는, 불법체류 제로로 만드는 유일한 방법,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전면 합법화를 서둘러 시행하라.

청계천의 촛불은 시작이다. 당신들의 반인권적, 반생명적 만행이 계속된다면 촛불은 어느새 커다란 너울이 되어 당신들을 품을 것이다.

2008. 5. 8
이주인권연대